

2013년 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3.2.28(목) 17:00~18:30

위원 주요 발언 내용

▲ 북한 핵실험 관련 보도 개선해야

- 뉴스Y는 '북한 핵실험 강행'이라고 자막을 띄운 뒤 30분이 지나 '북한 핵실험 강행한 듯'으로 바뀌어. 1보를 너무 단정적으로 나가. 신중해야(김정연 위원)
- 뉴스Y는 국방부 대변인 라이브 전환 시 앵커의 사전 안내 멘트도 없이 바로 화면이 전환돼. 진행 매끄럽게 해야(한박무 위원)
- YTN은 전문가가 나왔는데 뉴스Y는 전화 연결해. 사전에 출연자 명단 확보해 긴급하게 섭외해서 진행해야(한박무 위원, 이상목 위원)

▲ 자막 처리 신중하게 해야

- 자막하고 목소리가 매치돼야 몰입도가 생겨(이석구 위원)
- 류현진 등판 보도 중 나온 '신지애 LPGA 우승' 속보 자막이 감독 인터뷰 번역 자막을 가려 내용 볼 수 없어. 자막 처리 신경써야(이석구 위원)
- 2월 12일 8시 일기예보 지도에 픽토그램이 아닌 눈발, 빗방울이라고 한글로 표시해. 생경한 장면엔 실수라고 여겨(김정연 위원)
- 발표도 안했는데 자막이 미리 나오거나 이미 지나간 내용을 계속 남겨둬. 발표와 자막이 서로 맞아야(한박무 위원)
- 자막 크기가 화면의 1/4. 인터뷰 시 상반신이 증명사진 크기만 나와(한박무 위원)

▲ 심층 보도 강화해야

- 통계, 추세나 인과 관계 데이터를 통해 심층적으로 보도해야. 단편적인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경각심, 대책 등 알려주지 못해(김경모 위원)
-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힘든 점, 극복해야 할 점 등 취재해야(홍승용 위원)
- 제38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 취임을 앞두고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전반에 대한 주요 현안이나 문제점, 개선점을 다뤘으면(최종준 위원)
- 레슬링 퇴출에 대해 현장 분위기, 향후 미칠 영향 등 심층 보도해야(김정연 위원)

▲ 대통령, 정부 관련 보도 신중히 다뤄야

- 박대통령이라고 하면 박정희 생각나. 출범 초기에는 박근혜라고 풀네임 사용해야(차경애 위원, 임영호 위원)
- 원자력 R&D 미래부 이관 갈등으로 한 달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. 연구원 3만명

중 만명은 놓고 있어 국가적 손실. 심층 보도해야(이상목 위원)

-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나쁜 것만 보도해. 인재들 위해 장점도 보여줘야(이상목 위원)
- 잦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적절한 진단 내려야. 인수위 대다수가 정부 주요 보직을 맡은 만큼 이에 대한 분석 보도도 필요해(최종준 위원, 임영호 위원)
- 신정부 정책기조의 방향,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신정부 주요 인사 대담, 전문가 의견 수렴해야. 특집 프로그램 편성 등 심층 보도 필요(최종준 위원)

▲ 보도 및 프로그램 개선 필요해

- '박앵커의 뉴스 콕콕' 코너 좋으나 주제 선정시 객관성 공정성 필요해(차경애 위원)
- 글로벌Y 화면 어두워. 배경 밝게 하고 화면 전환 매끄러웠으면(차경애 위원)
- Y초대석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. 이슈에 맞게 초대가 돼야(차경애 위원)
- '아웃도어네비게이션'은 제목으로만 봐서는 무슨 프로그램인지 몰라(차경애 위원)
- 2월 16일 8시 자동차 시장 관련 보도는 자동차 모델에 대해서만 나와 광고하는 느낌 들어. 뉴스 가치 떨어져(차경애 위원)
- 2월 17일 인사동 건물 화재 시 나온 무등산 관련 보도는 이해 안가(차경애 위원)
- '정부가 굴러가는데', '북한을 방북한다'라는 표현은 깔끔하지 않아(김경모 위원)
- 북한은 오늘은 앵커의 브리핑이 지나치게 빠르고 긴박해 조절 필요(최종준 위원)
- '스포츠와이드' 배경화면에 전광판 조명이 강하게 보여 부담(최종준 위원)
- 장용훈 기자는 옷이 단정하지 못하고 말도 매끄럽지 못해(김정연 위원)

▲ 뉴스Y 차별화된 보도해야

- 오전, 오후, 저녁 시간대별로 특색있는 뉴스 프로그램 만들어야(박영상 위원장)
- 기사 산문식으로 써봐야. '얼음이 녹으면 물'이 아니라 '봄이 온다'라고 보고 사건을 봐야. 사람이 느끼고 체감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차별화 가능(박영상 위원장)
- 뉴스Y가 포럼을 공동주관하거나 생중계, 요약중계 해야. 매월마다 다른 포럼을 개최하고 9월은 녹색성장해양포럼을 개최. 마켓도 넓어지고 프로그램도 질적으로 좋아져(홍승용 위원)
- 종편이 평가 받을 시점이 됐다고 생각. 시작부터 현재까지 분석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뉴스Y의 강점과 약점, 위협이 무엇인지 분석해야(홍승용 위원)
- 연합뉴스와 뉴스Y의 장점은 속도이고 두 회사 간의 협업을 통한 융합적인 뉴스의 힘이 엄청나. 잘 유지해야(홍승용 위원)

▲ 기타

- 2월 6일 연합뉴스와 스탠포드 아태연구소가 국제심포지엄을 했는데 내용 좋아. 또 김정은 권력승계의 비밀 2부작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. 보도채널의

다양한 역할을 보여줬다고 생각(차경애 위원)

- '맹찬형의 시사터치'는 정치, 사회 등 다양한 분야 다뤄 좋아(차경애 위원)
- 건강 365도에서 봄철 알레르기에 대한 심층 보도해. 예방, 대책법 등 상세하게 소개해 주목도 되고 유익해(김경모 위원)
- 현재 KTX 화면과 TV 화면의 자막이나 포맷이 달라. 통일성 필요해(한박무 위원)
- 장애인 홈페이지 접근성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했으면(이석구 위원)
- 1년 동안 홈페이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별다른 대답이 없어. 다음 회의에서는 개선 계획 알려줬으면(김경모 위원). (끝).